국내
마감시황

2025.12.3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하락

반도체·건설·엔터주 강세, 2차전지·로봇주 약세
달러/원 환율 4거래일 만에 반등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4,214.17pt (-0.15%)	925.47pt (-0.76%)	605.98pt (+0.0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45.70 원 (+11.4 원)	3.3390% (-1.5bp)	6,953.00pt (-0.0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8,212 억	+5,348 억	+1,999 억
외국인	-4,867 억	-3,158 억	+3,194 억
기관	-3,690 억	-1,910 억	-5,507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최고치 4,226pt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4,214.17pt로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15%, KOSDAQ은 0.76%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2.7조원, KOSDAQ은 약 10.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4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KOSPI를 순매도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IT 서비스와 오락/문화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이틀 연속 KOSPI에서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운송 장비/부품과 오락/문화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유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美 상무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유입되며 엔터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정비 사업 수주 증가 전망에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엘앤에프의 공급 계약 규모 축소 공시 이후 2차전지 업종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로봇주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와이지엔터테인먼트(+7.26%), HDC(+6.55%), SK하이닉스(+1.72%)가 올랐고, 엘앤에프(-9.85%), LG에너지솔루션(-3.03%), 로보티즈(-2.43%)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